

해외출장 보고서

I. 출장 개요

- 출장 건명: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해외농업개발과 자원 확보 방안(1/3차년도)
- 출장 목적: 미얀마 해외농업개발 진출여건 및 사례 조사를 위한 해외출장
- 출장 국가 및 주요 방문기관
 - 국가: 미얀마
 - 주요 방문기관: KOTRA 양곤 무역관(양곤), KOICA 미얀마 사무소(양곤), 고무농장(에야워디 주)
- 출장 기간: 2009. 12. 19 ~ 12. 23(3박 5일)
- 출장자 인적사항

부서명	직 급	성 명
글로벌협력연구본부	연구위원	허 장

II. 출장 내용

- 출장 일정

일 정	주요 활동 내역	주요 면담자
2009. 12.19(토)	◦ 인천 국제공항 → 미얀마 양곤 국제공항 ◦ 양곤 인야레이크 호텔 체크인	
12.20(일)	◦ 회의 - 미얀마 농업현황, 투자여건, 정부 주요 정책 등 조사	◦ 김동호 목사, Mr. San Nyunt (전 농업관계부과장), Ms. Yu Yu Moe (미얀마 기업인)
12.21(월)	◦ 현지 고무농장 방문	◦ 농장주(Mr. U San Lin)
12.22(화)	◦ KOTRA 양곤 무역관 ◦ KOICA 미얀마 사무소 ◦ KOICA 농촌개발사업 사무실 ◦ 미얀마 출국	◦ 노인호 관장 ◦ 김진화 소장 ◦ 서종혁 박사
12.23(수)	◦ 인천 국제공항 도착	

○ 면담자 인적사항

소속기관	직 급	성 명	연락처
Ministry of Agriculture and Irrigation	농업국 종자과장	U San Nyunt	09501663549, engrmas@mas.com.mm
기업인		Yu Yu Moe	095053623
Myo Kyaw Lin	Managing Director	U San Lin	095024340
현지교민	목사	김동호	01645858
KOICA	소장	김진화	jhkim@koica.go.kr
KOTRA	관장	노인호	rohih@kotra.or.kr
IS Agri Corp.	전무	오병규	095400760

III. 주요 내용

1. 일반 현황

1.1. 개황

표 1 미얀마 개황

일 반	위치: 서남아시아, 인도차이나반도 서북부 면적: 677천 km² (한반도의 3배) 기후: 열대성 몬순 인구: 48.8백만명('07) 수도: 네피도(Naypyidaw, '06 수도 이전) 민족: 버마인(68%), 샨인(9%), 카렌인(7%) 언어: 미얀마 어 종교: 불교(89%), 기독교(4%), 회교(4%)
정 치	독립일: 1948.1.4(영국) 정치체제: 과도 군사정부 국가원수: Than Shwe 국가평화발전위원회(SPDC) 의장 의회: 1988년 9월 쿠데타로 강제해산 주요정당: 민주국민연맹(NLD), USDA 등 국제기구 가입: UN, IMF, IBRD, ADB, ASEAN, WTO 등
경 제	화폐단위: Kyat (Kt) 회계연도: 4.1~3.31 산업구조: ('07) 농업 50.0%, 서비스업 32.4%, 제조업 17.6% 주요수출품: ('07) 가스 42.4%, 콩 10.2%, 목재 8.4%

	주요수입품: ('07) 중간재 44.5%, 자본재 31.2%, 소비재 24.3% 주요부존자원: 석유, 천연가스, 납, 아연 경제적 강점: 천연자원 풍부, 저임노동력 풍부 경제적 약점: 높은 농업의존도, 사회간접자본 부족, 정치·사회 불안
--	---

미얀마는 남북으로 긴 국토형태를 가지고 있고 북쪽으로 히말라야 산맥, 남쪽으로 벵골만 및 안다만 해 등이 있어서 매우 다양한 기후대와 지형을 나타내고 있다. 3월부터 5월까지 덥고 건조한 여름과 6월부터 10월까지 덥고 비가 많이 오는 우기가 이어지고,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비교적 서늘하고 비가 적은 청명한 날씨를 보인다. 지형적으로는 대체로 남부의 광활한 델타지역과 중부 건조지역, 북부 산악지역으로 나뉜다.

강수량 등 기후여건도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난다. 10년 평균치를 보면 강수량은 남부 안다만 해와 길게 연하고 있는 타닌타리 주의 5,663mm에서 북부 건조지대의 사가잉 주의 706mm까지 8배나 차이가 난다. 최대온도는 23℃에서 34℃, 최소온도는 14℃에서 23℃로 차이가 있다.

표 2 주요 지점별 강수량, 온도, 습도

구 분		1996~2005 평균				2005 실제 지수			
		연평균	온도(℃)		평균	연평균	온도(℃)		평균
지점	주	강수량 (mm)	최대 평균	최소 평균	상대 습도 (%)	강수량 (mm)	최대 평균	최소 평균	상대 습도 (%)
Myitkyina	KACHIN	2370	30.2	19.0	76.3	1757	30.9	19.0	78.2
Loikaw	KAYAH	1068	29.3	17.2	68.3	1435	29.4	17.6	67.5
Hpa-an	KAYIN	4395	33.6	22.3	76.6	4853	32.9	22.3	81.2
Falam	CHIN	1449	23.6	14.2	70.2	1675	24.7	14.7	66.6
Monywa	SAGAING	706	34.2	21.6	67.2	668	35.2	22.3	65.1
Dawei	TANINTHARYI	5663	32.1	21.1	78.8	5527	32.5	21.1	79.9
Bago	BAGO	3286	32.7	19.8	79.8	3223	33.4	19.1	83.6
Magway	MAGAWAY	884	34.0	19.9	70.6	963	34.3	20.3	72.7
Mandalay	MANDALAY	847	34.0	22.0	66.5	664	34.9	22.9	66.0
Mawlamyine	MON	5188	32.3	22.4	76.8	5477	32.3	22.7	77.6
Sittwe	RAKHINE	4897	30.5	22.1	79.7	5205	30.5	22.8	80.6
Yangon	YANGON	2826	33.2	20.9	77.0	2679	33.7	19.3	81.1
Lashio	SHAN(NORTH)	1221	29.1	15.3	74.1	636	29.8	16.0	72.6

Taunggyi	SHAN(SOUTH)	1413	25.3	14.8	69.4	1552	25.8	15.4	70.1
Keng Tung	SHAN(EAST)	1236	29.4	16.0	71.5	1200	29.8	15.8	68.6
Patheingyi	AYEYARWADY	2957	32.6	22.3	79.2	2923	33.8	23.2	80.1

자료: Department of Agricultural Planning(2008).

1.2. 경제현황

2000년대 초반에는 농업과 봉제산업의 발달로 2005년에는 13.6%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하였지만 이후 농업부문의 부진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3%대로 급락하였다. 2008년에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한 사이클론(나르기스)과 주요 수출대상국인 태국, 인도, 중국의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1% 수준에 머물렀고, 2009년에도 세계적 경기침체로 나아질 전망이 없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재해복구, 2010년 총선대비 등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율도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식료품과 유류제품 등 수입에 의존하는 소비재의 국제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상승률도 높은 편이다.

표 3 미얀마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단위	2005	2006	2007	2008	2009
국 내 경 제	GDP	억 불	112	119	163	22.6	265
	1인당 GDP	불	234	246	334	460	534
	경제성장률	%	13.6	3.4	3.4	0.9	0.3
	재정수지/GDP	%	-2.2	-2.6	-3.0	-3.6	-4.5
	소비자물가상승률	%	9.4	20.0	35.0	26.8	10.0
대 외 거 래	환율	Kt/\$	1,095	1,280	1,290	1,185	1,090
	경상수지	백만불	576	760	1,285	1,005	527
	상품수지	"	2,028	2,211	3,206	2,902	2,033
	수출	"	3,788	4,555	6,170	6,328	4,904
	수입	"	1,759	2,343	2,964	3,426	2,871
	서비스수지	"	-234	-283	-307	-347	-398
	자본수지	"	166	253	..	..	..
외 채 현 황	외환보유액	"	782	1,248	1,862	2,132	1,921
	총외채잔액	"	6,645	6,828	7,133	7,740	7,202
	단기외채	"	1,450	1,595	..	33	..
	총외채잔액/GDP	%	59.2	57.4	43.7	34.2	27.2
	DSR	%	2.6	1.7	2.1	2.8	2.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09).

산업부문별로는 제조업의 발전이 미약하며, 그나마 식음료 산업, 즉 1차 농산물 가공산업이 제조업 생산의 8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봉제산업은 미국이 미얀마 제품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2003년 7월 이전까지는 300개 공장에서 35만 명을 고용할 정도로 수출산업으로 성장한 적이 있다. 이제는 유럽, 일본 등 대체시장을 발굴하면서 봉제분야도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다(한-아세안센터, 2009).

미얀마는 긴 국경선을 활용하기 위하여 1996년에 11곳의 국경무역지대를 개설하였다. 이 곳을 통한 국경무역량 중에는 중국이 약 70%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 뒤를 태국, 방글라데시, 인도가 잇고 있다.

미얀마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 중의 하나는 전력에너지 문제이다. 전력설비와 계통이 불비하여 산업체와 일반국민에 대한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경제와 사회 모두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최근 4~5년 사이에 풍부한 하천 및 강수량을 이용한 수력발전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표 4 미얀마 설비별 발전용량

단위: 백만 kwh

	화 력	경 유	수 력	가 스	계
2002~03	641.48	28.50	2,111.02	2,286.95	5,067.95
2003~04	634.31	31.45	2,074.81	2,685.31	5,425.88
2004~05	404.72	33.23	2,407.75	2,762.54	5,608.24
2005~06	631.91	33.37	3,000.80	2,398.08	6,064.16
2006~07	786.42	28.08	3,324.63	2,025.02	6,164.15
2007~08	1,067.91	32.92	3,619.15	1,883.91	6,603.93

자료: 한-아세안센터(2009).

벵골만에 인접한 곳을 제외하고는 수도인 양곤으로 철도가 연결되어 있다. 양곤은 미얀마 해운 물동량의 90%를 처리하는 국제항구이다.

2. 농업현황

2.1. 농업의 특징

미얀마에서 농업은 GDP 비중, 고용량, 수출액 등으로 볼 때 국가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이다. 전통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재의 군사정권 아래에서도 정권안보 차원에서 식량생산 증대 등 농업중시 정책을 펴 왔다. 아래 표는 식민지 시기 이후 미얀마의 시대별 주요 농업관련

정책,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5. 미얀마 농업의 변천

시대 구분	주요 농업관련 사항
식민지 시대 (1886~1948)	중전의 자급자족적 농업에서 수출산업으로 변신, 미얀마 쌀과 영국 공산품이 교환됨. 벼 운송을 위해 예야워디 델타지역에 운하가 건설됨.
민간정부 시대 (1948~1962)	1962년 쿠데타 직전 벼 수출량 168만 톤일 정도로 발전되고, 시장거래 이외에 국가가 벼를 수매하고 분배하는 제도가 병행됨.
사회주의 군사독재 시대 (1962~1988)	토지, 기업 국유화 및 농업에 정책적 역점을 둠. 벼 등 주요 42개 농작물에 대한 수확후 부문에서 완전히 민간을 배제하고 정부가 통제
시장경제 군사독재 시대 (1988~)	쌀 수매 축소 등 농업전반에서 정부역할 축소, 민간부문의 진출 증가로 벼 재배면적 확대, 쌀값 상승 그러나 아직도 사회주의 군사독재 시절의 제도와 시장경제적 제도가 혼합되어 있음.

자료: 코트라 양곤 무역관(2009).

다양한 기후대와 토양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배하는 작물도 매우 다양하여 쌀, 밀, 옥수수, 유채, 면화, 기장, 콩, 황마, 고무, 설탕, 공작야자, 담배 등 60가지에 이른다. 쌀은 가장 생산량이 많은 식량자원이며, 최근에는 콩을 다량 재배하여 인근 인도로 수출하고 있다. 수자원이 풍부하나 관개시설이 발달하지 못하여 다모작이 많이 보급되지 않아 그만큼 생산성 증대의 여지는 많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국, 인도, 태국 등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인접해 있어서 농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높고 수출도 활발하다. 중국과는 2,227km, 인도와 1,453km, 태국과 2,099km, 방글라데시 272km에 걸쳐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서 이들 나라와는 국경무역이 성행하고 있다. 이 네 나라의 인구를 합하면 27억 명에 이르는데, 이 인구가 모두 소비시장이 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적어도 매우 큰 잠재적 시장을 곁에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농업관개부 산하에 수산국이 있어서 어업권을 부여하고 1989년 이래 합작 수산개발 프로그램과 합작회사 설립이 이루어져 왔다. 한편 미얀마의 국토의 절반이 산림지대로 특히 티크가 많이 식재되어 있다.

2.2. 농업부문 지표

농업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08년도에 35.6%, 축산과 수산업 7.5%, 임업 0.6%이다.¹⁾ 농림수산, 축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년간 서서히 감소되어 왔다. 1990~91년 이 부문의 비중은 57.3%였으며 공업부문이 10.5%였는데, 이제는 43.3%와 19.9%로 각각 감소, 증가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농업은 미얀마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임에는 틀림없다.

농업인구는 2007년 전체의 64% 정도에 이르며 농촌거주 인구는 전체의 70% 가량으로, 농촌인구 자체는 늘고 있지만 전체 인구 중의 비중은 아주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2.3. 토지이용

미얀마에서 현재 농작물이 재배되는 면적은 1천167만 ha이다. 경작이 가능하지만 수리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버려진 곳이 그 절반인 575만 ha에 이르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그 규모는 해마다 20만 ha 정도씩 줄어들고 있다. 휴한지 역시 줄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고원지대 주민들이 화전경작 후 휴경하던 기간을 단축시킴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때 농업환경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표 6 토지 이용현황

단위: 천ha

항 목	1995/96	2002/03	2004/05	2005/06	2006/07	2007/08 (Prov)
재배면적	8,910	10,085	10,516	10,922	11,379	11,671
휴한지	1,231	584	439	368	298	256
경작 가능한 미이용지	7,971	6,521	6,416	6,279	5,972	5,753
보전 산림지	10,321	14,174	15,382	15,707	16,462	17,429
기타 산림지	22,079	19,238	18,134	17,829	16,985	16,006
기타 토지	17,147	17,057	16,772	16,553	16,563	16,545
합 계	67,659	67,659	67,659	67,658	67,659	67,660

자료: Department of Agricultural Planning(2008).

특히 미얀마 정부는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다모작 지대의 확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5년간 경지이용도가 약 140%

1) 미얀마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임업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부처가 농업관개부, 축산수산부, 임업부로 나뉘어 있어서 통계도 이와 같이 분류되어 생산됨.

에서 170% 가까이로 늘어났다.

표 7 농지 활용도의 변화

단위: 천ha, %

항 목	1995/ 96	2000/ 01	2002/ 03	2004/ 05	2005/ 06	2006/ 07	2007/ 08
각종 작물 재배면적 (A=B+C)	12,884	15,450	16,146	17,431	18,754	20,405	21,978
순 재배면적 (B)	9,168	10,476	10,818	11,415	11,938	12,613	13,144
혼작 및 다 모작 면적 (C)	3,716	4,974	5,327	6,017	6,816	7,793	8,835
경지이용도 (A/B)	140.5	147.5	149.2	152.7	157.1	161.8	167.2

자료: Department of Agricultural Planning(2008).

미얀마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기후대에 따라 영농체계가 다른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체계로 구분된다(Swe et al., 2002).

첫째, 남부의 에야워디 델타 지역(Ayeyarwady Delta)으로, 늪지가 많고 염기가 섞인 토지는 침식에 취약하다. 수자원 관리와 배수가 어려워 홍수에 의한 작물피해도 빈번하다. 주로 벼를 재배하고 일부는 콩류를 답리작으로 심는다. 땅이 없는 주민은 어업에도 종사한다.

둘째, 미얀마 중부에 광범위하게 걸쳐있는 건조 지역(Dry Zone)으로 만텔레이 등 인구밀집 지역이 속한다. 강우량이 적고 구름지가 많아 표토층이 얇다. 생계농보다는 상업농이 많아서 수출용 참깨나 콩과 같은 환금작물을 심고, 북쪽에는 면화와 계절 채소도 흔히 재배한다. 축력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지만, 수자원과 비료가 부족하여 생산성과 소득이 낮고 연료림을 팔아 생계를 보전하거나 대도시나 국경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선다.

셋째, 1,000m에서 2,300m에 이르는 고원지역(Upland Areas)에는 주로 소수민족 마을들이 분포한다. 인근국가와 접해있는 북, 동, 서부 지역이 속한다. 주민들은 매우 가난하고 화전농법으로 주로 밭벼를 재배한다. 보통 2~3년 정도 경작하고 휴경하나 휴경기간이 짧아지고 있어서 비옥도와 생산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일부 오지에는 마약을 위한 양귀비를 재배하여 정부가 대체소득원 개발에 부심하고 있다.

농지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1911년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사용하

던 6가지 분류가 지금도 통용되고 있다.

레(Le) 토지는 벼농사가 가능한 농지로서 평지에 배수가 불량한 점질토를 말하며, 주로 남부 델타 곡창지대와 중부 내륙에 분포한다. 야(Ya) 토지는 중부 내륙의 건조지대에 있는 땅을 말한다. 카잉(Kaing) 토지는 고운 모래로 이루어져서 콩이나 채소 등 배수가 좋은 곳에서 재배가 가능한 작물에 적합하다. 정원(Garden) 토지는 과일과 채소재배에 적합한 땅으로, 타닌타리, 몽 주 등지에 분포한다. 다니(Dani) 토지는 에야와디 주 등 남부 해안의 야자나무가 자라는 지역의 토지이다. 끝으로 타웅야(Taungya) 토지는 산간의 토지를 말한다.

표 8 주별 토지종류별 재배면적(2004~2005)

단위: 천ha

주	레	야	카잉	정원	다니	타웅야	계
카친	139	44	20	16	0	15	235
카야	20	32	0	1	0	14	66
카인	207	2	6	54	0	13	281
친	9	0	1	5	0	75	90
사가잉	672	838	1346	6	0	13	1,663
타닌타리	97	0	0	158	9	22	287
바고(동)	617	29	14	59	0	1	720
바고(서)	398	59	66	13	0	1	537
마그вай	230	802	85	1	0	5	1,123
만달레이	409	853	66	11	0	2	1,342
몽	290	0	5	157	6	3	461
라키네	395	10	5	29	6	4	449
양곤	485	0	6	79	2	0	573
샨(남)	102	249	0	52	0	12	415
샨(북)	87	172	3	69	0	47	378
샨(동)	57	38	0	11	0	23	129
에야와디	1,491	20	104	135	16	0	1,766
계	5,706	3,146	517	856	40	250	10,516

자료: 코트라 양곤무역관(2009).

2.4. 주요 작물별 현황

벼농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벼농사를 지어야 하며 건기관개가 가능한 곳은 2모작도 해야 할 정도로 미얀마 정부는 쌀을 중요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얀마에서 가장 많은 면적에서 재배되는 작물은 역시 벼로, 최근에는 40% 정도를 차지한다.

우기가 시작되는 6월에 파종하여 10월에 수확하는 몬순 벼(monsoon paddy)가 주로 재배되고, 11월에 파종하여 이듬해 4월에 수확하는 여름 벼(summer paddy)는 2모작이 가능한 곳에서 재배한다. 그러나 총

재배면적이 개간과 경지 이용도 증가로 늘어남에 따라 벼의 비중은 지난 10년간 감소되어 오는 추세이다.

반면에 벼농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지정되지 않은 그 밖의 농지에 대해서는 작물선택을 자유로이 할 수 있어서, 농민들은 벼보다 수익성이 좋은 콩, 채소, 과일 등을 재배한다. 벼 다음으로는 콩류와 유지용 종자가 19.6%, 16.2%이다. 콩은 최근 미얀마에서 그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곡물이다. 20년 전에 비하면 재배면적이 5배 정도나 늘어났다. 특히 남부지방에서는 벼에 이어 후작으로 콩을 재배하는데, 콩은 투입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벼를 두 번 재배하는 것보다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고 있다.

표 9 주요작물 재배면적과 비중

작 물	1987~88		1997~98		2007~08	
	면적(천ha)	%	면적(천ha)	%	면적(천ha)	%
벼	4,668	48.3	5,785	48.8	8,125	39.8
콩류	818	8.5	2,091	17.0	4,002	19.6
유지용 종자	2,088	21.6	1,735	14.1	3,314	16.2
옥수수	156	1.6	162	1.3	327	1.6
기타	1,930	20.0	2,504	18.8	4,637	22.7

자료: Department of Agricultural Planning(2008).

한편, 생산량으로는 쌀이 3천만 톤 이상이어서 수확면적 대비 생산성은 ha당 3.93톤이 된다. 쌀의 자급률은 2000년 123%에서 2007~2008년에는 166%를 달성하였다(Kyaw, 2009).

콩은 생산되는 종류가 흑녹두, 완두콩 등 17가지가 될 정도로 다양하다. 생산량 역시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도 계속해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밖에 중요한 농산물 품목은 참깨, 해바라기와 같은 유지류로, 낙화생 기름(groundnut oil), 참기름, 해바라기씨 기름 등이 다량 생산된다. 그러나 국제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아 인근 국가에서 팜오일을 수입하고 있다. 주요 작물의 생산량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0 주요 작물 생산량

작물명	단위: 천M/T							증가
	1995/	2000/	2002/	2004/	2005/	2006/	2007/	

	96	01	03	05	06	07	08	분
쌀	18580	21324	21805	24752	27683	30924	31451	12871
밀	78	94	107	152	159	142	158	80
옥수수	275	365	603	784	918	1032	1146	871
수수	150	169	166	181	212	208	191	41
흑녹두	371	532	665	914	1021	1201	1381	1010
녹두	337	519	617	790	945	1055	1197	859
제비콩	35	50	53	58	63	71	74	40
Sultapya	30	57	58	72	91	96	105	75
대두	66	110	124	167	189	204	217	151
이집트콩	93	119	212	239	265	335	354	261
완두콩	145	320	442	556	609	655	731	586
정원콩	24	31	38	44	46	57	61	37
땅콩	593	731	756	946	1039	1105	1222	629
참깨	304	426	460	542	504	690	781	477
해바라기	164	268	272	385	560	502	703	539
목화	165	153	143	195	236	268	308	143
황마, 섬유	43	44	50	23	30	31	19	(-)24
고무	26	36	40	52	64	73	89	63
사탕수수	3251	5894	6429	7311	7187	8168	9833	6583
커피	2	2	3	4	4	5	6	5
감자	187	319	352	457	478	522	530	342
버지니아 담배	3	6	4	7	8	5	3	-
야자유용 야자	17	72	88	78	114	175	210	193

자료: Department of Agricultural Planning(2008).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얀마는 국경무역이 활발하다. 이를 통한 농산물 무역량이 전체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23.2%이었다가 빠르게 늘어서 2006년 36.4%, 2007년 49.4%, 그리고 2008년에 53.3%를 차지하였다(Kyaw, 2009).

쌀의 자급률이 100%를 훨씬 넘으면서 쌀의 수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얀마는 1930년대만 하더라도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이었으나, 그 뒤 인구증가로 인한 국내수요 증가, 신규 농경지 확대 한계, 기술수준 낙후 등으로 수출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군정이 시작된 1962~63년도에 51만 2천 톤을 수출하였는데 수출량의 부침이 심하여 1988~89년 23만 6천 톤, 2002~03년 79만 4천 톤, 2006~07년 1만 5천 톤이었다. 그

러다가 민간부문에서의 쌀 수출이 허락되기 시작한 2007년에는 다시 수출량이 급증하기 시작해서 2007~08년 35만 9천 톤, 2008~09년 67만 4천 톤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Department of Agricultural Planning, 2008; 코트라 양곤무역관, 2009).

콩류 농산물은 쌀과는 달리 민간부문이 자유롭게 생산, 국내 판매하고 정부의 허가를 얻어 수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인도 등 인구대국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수출도 크게 늘고 있다. ASEAN 국가들 가운데에는 가장 수출량이 많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두 번째로 많이 수출하고 있다. 수출대상국은 인도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흑녹두(Black gram), 녹두(Green gram), 완두콩(Pigeon pea)이 전체 콩 수출액의 80~90%를 차지한다(코트라 양곤무역관, 2009).

표 11 주요 작물별 수출량

단위: 천M/T

농산물	1995/ 96	2000/ 01	2002/ 03	2004/ 05	2005/ 06	2006/ 07	2007/ 08
쌀	354.0	251.4	793.5	182.2	180.0	14.5	358.5
옥수수	62.0	147.9	219.2	254.8	90.0	183.3	156.0
흑녹두	185.0	274.6	306.3	407.4	379.6	487.2	494.4
녹두	185.9	186.0	205.5	143.5	174.1	248.5	178.8
기타 콩류	238.7	370.7	526.6	322.3	323.8	419.8	468.2
참깨 종자	50.3	34.4	8.6	10.5	21.5	39.4	31.5
Niger seeds	0.0	14.1	3.4	0.0	0.3	1.3	4.7
양파	0.0	57.5	42.2	1.1	24.3	8.7	5.3
타마린드	0.0	3.2	10.2	13.7	7.1	11.8	15.8
Oilcakes	31.1	0.4	0.0	0.0	0.0	0.0	0.0
고무원료	24.8	20.4	22.0	14.2	29.3	9.5	19.2
가죽	0.4	6.6	4.8	3.5	3.7	3.0	1.1

자료: Department of Agricultural Planning(2008).

한편 미얀마는 산림자원이 풍부하여, 중국, 인도에 이은 아시아 3위의 삼림 보유국으로, 특히 티크와 하드우드(가시나무)가 많이 생산된다. 티크는 전 세계의 75%에 이르는 610만 ha의 면적에서 자라고 있고 연간 30만

큐빅 톤 가량이 생산되며 그 대부분은 수출된다. 하드우드는 2007~08 년도에 약 80만 큐빅 톤이 수출되었다.

수산물도 생산량의 10% 가량이 중국, 일본 등 40여 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새우 등 갑각류는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아세안센터, 2009).

3. 농업지원 정책

미얀마에서 농민은 토지를 경작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 도입 이후에는 경작권으로도 토지의 매매 및 임대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며, 국가가 경작권을 환수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농업은 이 나라의 가장 기초적인 산업으로 국가가 공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성 증가를 통한 식량증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얀마 정부의 농업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다(코트라 양곤무역관, 2009).

○ 목표

- 농산물 자급자족 및 수출을 위한 생산성 향상
- 식량증산을 위한 경지면적의 확대
- 농업자유화 및 민간부문 역할 증대

○ 추진전략

- 새로운 경지면적 개척
- 관개 및 배수시설 확충
- 농업기계화 진전
- 신농업기술 적용
- 종자개량 및 관련산업 활성화

이와 같은 목표와 추진전략에 따라 농업지원 정책의 방향은 우선 경지면적의 확장을 위하여 새로운 농토의 개간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농업관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Irrigation) 산하에 가경지, 휴경지, 황무지를 농업용으로 활용하도

록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총괄하는 중앙위원회(Central Committee for the Management of Cultivable Land, Fallow Land, and Waste Land, CCMCL)를 두고 있다.

최근에는 다모작이 대안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특히 고온다습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1960~1980년대에 다모작 지역이 크게 늘었고, 정부가 1992년 쌀값 상승에 따라 여름 벼 프로그램(Summer Paddy Program)을 시행하면서 농업 기계화, 관개시설 설치가 대규모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농업 인프라 설치를 위한 자본부족이 걸림돌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부터는 수출 농산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콩류(pulses)를 재배하는 방식으로 다모작이 성행하게 되었다.

생산성 증대를 위한 또 다른 정책방향은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종자개량, 신기술 적용, 기계화, 비료공급 및 병충해 방제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연관산업의 미발달, 기술수준의 낙후, 그리고 비료 등 수입에 의존하는 투입재의 경우 외화부족 등의 이유로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는 평가이다(코트라 양곤 무역관, 2009).

4. 농업투자

4.1. 농업부문 투자유치 분야

미얀마의 농지를 이용하는 외국인, 외국기업은 국가계획경제개발부(Ministry of National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산하의 미얀마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MIC)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미얀마는 외국인투자법(부록 참조)에 따라 농업 등 8개 부문을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분야로 지정하였다. 농업관개부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토지개발, 농업관련 산업개발, 농기계 및 장비제조, 비료 등 농업 투입재 생산, 농업기자재 유통 또는 수출입 활동으로 나누었다(코트라 양곤 무역관, 2009).

우선 토지개발의 경우 앞서 언급한 가경지 등을 총괄하는 위원회, 즉 CCMCL과 미얀마 투자위원회(MIC)의 허가를 얻어 5천 에이커까지 임차가 가능한데, 다시 내각의 허가를 얻는 경우 5만 에이커까지도 가능하다. 임차기간은 최대 30년이며 연장이 가능하다. 초기 임차료 면제

(2~8년간), 최소 3년간 소득세 면제 등의 특혜도 있다.

농업관련 산업개발에는 고무, 오일팜, 너트, 과실류 등의 플랜테이션과 설탕공장, 면화산업, 황마산업, 고무산업 등이 있고, 기타 농약이나 종자가공, 식용유, 식품가공 등을 위한 시설 개발이 포함된다.

농기계 및 장비제조는 각종 경운기, 트랙터, 펌프, 스프링클러, 점적관수 장비세트, 이앙기 등이 포함된다.

농업기자재 수입 및 수출, 유통 분야에서는 쌀과 같은 수출유망 품목, 각종 비료, 농약 등 농업관련 자재와 같은 수입유망 품목들이 나열되어 있다.

4.2. 농장개발의 절차

공식적인 농업투자 절차 이외에 실제 농장을 발굴하고 투자가 이루어질 때에는 비공식적인 절차들이 필요하다. 이하는 농장개발 경험에 있는 현지 거주민이 정리한 농장개발 절차이다(김동호, 2009).

- 관심 작물 선정
- 적합한 지역조사 및 현지 답사
- 현지 유관기관(농업관개부, 산림부)과 협의, 지적도 및 서류 확인
- 현지 담당 공무원들과 현장 답사
- 현지 공무원들과 협의하여 농업개발 신청(주 정부)
- 주 정부의 서류심사 후 현장 답사 명령서 하달
- 현장 조사 : 농업관개부 토지 지적계, 산림부, 환경담당, 토지소재지의 담당공무원들과 공동으로 답사 및 이상 유무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주정부에 제출함. 이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농민이나 단체가 있으면 이의가 제기된 부분은 신청이 불가
- 농업개발 주체 및 회사는 단체에 대한 법인등록증, 재정상태증명서, 농업개발 계획서, 자금집행 계획서 등을 제출
- 유관 기관들의 동의서가 주정부에 제출되어야 함(지적계, 산림부, 지방정부 및 주민들의 이의 없음에 대한 동의서).
- 주 정부의 자체 심의후 주 농업개발위원회에 제출

- 주 정부 최고통치자인 지역 군사령관 주재 회의에서 공식회의(각 기관장들 전원 참석) 의결로 토지사용, 개발권 및 허가조건을 부여받음. 벼 농사, 고무나무, 티크 등의 지역정부의 중점 농업개발사항이 전체 면적의 20%에서 요구됨. 서류상 공식적인 허가의 주체는 항상 주 정부와 주지사임.
- 공식적인 개발 시작 : 허가 받은 면적을 4~5년 기간에 개발하여야 함.
- 개발과 더불어 모든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의 토지개발 허가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서 중앙정부의 국가토지관리위원회에 30년 경작권 보장을 신청함(약 12종의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며 시간, 경비가 필요함).
- 농장 소재지의 군 토지 담당 관리인은 매 6개월 단위로 개발상황을 조사함.
- 중앙토지관리국의 개발현장 확인후 30년(기간 만기후 10년 단위로 3회 연장 가능) 경작권 및 30년 토지 임대세 부과

5. 미얀마 농업의 가능성

미얀마는 농업이 국가경제와 고용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정부가 농업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열대성 기후와 온대성 기후, 해양, 건조지대와 고원지대 등 다양한 기후조건과 지형을 가지고 있어서 곡물과 원예, 약용작물, 공업용 작물 등 필요에 따른 맞춤형 농업생산이 가능하다는 평가이다(김동호, 2009).

에야워디 강을 비롯, 친드윈 강, 판툰 강, 시타웅 강 등 대규모 수자원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 연간 평균 강수량이 2,500mm에 이른다는 점도 농업의 강점이다. 아울러 인도와 중국, 태국, 방글라데시 등 주변의 인구대국의 식량창고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서 인구 6천만 명을 위한 내수와 주변국으로의 수출 등이 모두 가능하다.

이들 나라와는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국경을 통한 무역이 활발하고, 그 가운데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의 경우 53.3%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다. 이는 국내 운송 인프라와 해상운송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히 북부 등 변방을 중심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국경무역을 통해 인구가 많은 소비지로 수출하는 방식이 발달한 것이다.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외교적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곡물 메이저가 진출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들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농산물의 수집과 유통에서 유리하다는 점도 있다.

하지만, 여느 저개발국과 다르지 않게 도로, 전기, 저장시설, 농기계 등과 같은 농업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고, 관료들의 수동적 태도, 부패, 복잡한 인허가 과정 등이 농업투자를 저해하고 있다. 우수한 종자 개발에 힘을 쏟고는 있지만, 아직도 대개 외국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경제봉쇄가 지속되는 상황이 농업을 포함한 경제 일반의 질곡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얀마는 중국, 인도, 태국 등 인근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을 확대하여 이를 타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 결과 태국을 비롯한 ASEAN 국가의 대 미얀마 투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러한 시도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이다(코트라 양곤 무역관, 2009). 하지만 2010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총선 이후 다시 정국이 불안정해지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욱 확대된다면, 이 역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표 12 대 미얀마 외국인 투자현황

구 분	국가/지역	투자 승인액 (백만 달러)	비 율(%)
주요 투자국가	태국	7,422	47.0
	영국	1,861	11.2
	싱가포르	1,553	9.8
	중국	1,331	8.4
	말레이시아	661	4.2
투자 지역	ASEAN	10,050	63.7
	EU	2,672	16.9
	기타 아시아	2,532	16.0

자료: Thuza(2009).

6. 미얀마 해외농업개발 진출의 방향

에야워디 델타에 있는 양곤을 중심으로 한 평야지대 뿐만 아니라 북부와 중부의 넓은 농업지대가 다양한 기후대와 결합하여 수많은 종류의 농작물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내륙의 운송 인프라를 이용하여 수집한 뒤 양곤항에서 해운을 이용하여 제3국 혹은 우리나라 국내로 반입하는 루트는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다. 아직까지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이에 따라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국제기구, 원조단체가 별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은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아직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게 한다.

따라서 미얀마로의 농업개발을 위한 진출은 고무나 면화와 같은 공업용 작물 혹은 환금작물을 재배하여 중국 등지로 수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인 콩의 경우 수확후 건조와 선별만으로도 수출이 가능하다(코트라 양곤 무역관, 2009). 그러나 우리에게 생소한 품종을 많이 재배하고 사료용보다는 유지용으로 재배하고 있어서 사료용이 필요한 우리나라로의 반입을 추진하기보다는 가공하여 중국과 인도로 수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미얀마 정부는 유희지, 황무지를 개간하고 기존 재배지에 대한 혼작과 다모작을 통해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려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종자개량과 비료 등 투입자재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또한 저습지, 건조지대, 산림지대에 제방과 저수지, 농로 등 기반시설과 용수시설을 설치하여 개간하고 생산물을 수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나, 이 경우 개간비용이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콩과 옥수수 등 주요 작물에 대한 작부체계를 적절히 설정하여 농지의 활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작물을 선택하고, 우리나라의 앞선 농업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종자를 개발하고 재배기술을 도입하는 등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표 13 미얀마 농업개발의 진출방향(요약)

여 건	진 출 방 향
다양한 기후, 지형	곡물, 원예, 약용작물, 공업용 작물 등 다양하게 고려
국내·해상운송 인프라 미발달	해운을 이용한 제3국, 국내반입은 중장기적으로 검토 고무나 면화와 같은 공업용·환금작물과 콩류는 중국과 인도로 수출
개간, 혼작, 다모작을 통한 생산성 제고 정책	주요 작물에 대한 작부체계 설정, 농지의 활용성을 제고할 작물 선택 우량 종자, 재배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증가 추진

이와 관련하여 현지에서 제안한 유망한 작물들을 참고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4 제안된 유망작물

구 분	유 망 작 물
바이오 에너지 작물	유채: 인도와 중국에서 대량 구매하고 있음. 카사바: 중국계 회사의 대규모 재배 사탕수수: 중국, 태국 회사들의 대규모 영농 기름야자(oil palm): 말레이지사, 태국이 식용유로 생산중임. 옥수수: 태국의 회사가 대규모 재배 준비 중 갈대, 억새: 미얀마 북부 지역에 무제한으로 자라고 있음.
약용작물 기타	커피, 감초, 공사인, 계피, 황련, 당귀, 생강, 영지버섯 및 다양한 자연산 약용 버섯 양봉: 중국 운남성과 접해 있는 북부 지역에서 가능
식량작물	벼, 콩, 옥수수, 동부콩, 메밀, 밀, 녹두
공업작물	황마, 대마(삼베), 고무나무

자료: 김동호(2009)에서 정리.

7. 인터뷰 내용

7.1. 김동호 목사

- 한국업체가 들어와 농업개발을 하여 성공한 사례는 없음.
 - 열대농업의 전문가가 없음.
 - 현지에 안정된 agency를 확보하지 못함.
- Kachin State에 적지가 있음.
 - 극조생종 벼 재배 가능
 - 대규모 플랜테이션 가능
 - 곡물메이저가 진출하지 않음.
 - 7년 프로젝트로 댐 건설을 위한 노동자 정착촌이 건설되어 있음.
 - 이러한 지역개발 프로젝트는 주 정부가 담당함.
- ☞ 미얀마는 State, Division의 권한이 큼.

7.2. Mr. U San Nyunt

- 델타 지역의 쌀은 품질이 좋음.
 - 전국에 농업관계부가 관리하는 벼씨 생산포장은 75,000ha
- 농업연구국(Department of Agricultural Research)은 모든 작물에 대한 연구를 수행
- 한국의 농촌진흥청과 MOU를 맺었음.
 - 이른바 “샌드위치 프로그램”
- 미얀마는 수확후 관리기술과 지식이 부족
- 국경지역의 지역개발이 필요
 - 건조지역은 수자원 관리 필요
 - 생산기술 훈련: 채소와 종자
 - 신제품 보급 훈련: 콩류
 - 담당부처는 Ministry of Border Area and Development
- 농업계획국(Department of Agricultural Planning)이 모든 프로젝트를 관장하며 국제협력제도 여기에 속함.
- 시장정보체계(market information system)가 필요
- 4~5년전 자트로파 식재사업이 시작되었음.
 - 바이오 디젤 생산용
 - 인도에서 온 학자의 의견에 따라 고위층에서 지시로 시작
 - 150만 에이커에 식재하였으나 토양, 재배방법, 기후 등의 문제와 수매 및 정제 시스템 부재로 모두 실패
- 쌀 도정협회가 있음.
 - 민간부문이며, 기계가 노후
 - 기계는 일제(사다키, Sadaki)를 사용
- SEARCA는 내년 4월 만달레이에서 개최될 예정임.

7.3. 고무농장 대표

- 고무는 우기를 제외하고 연간 9개월간 채취가 가능
- 3천 에이커 가운데 현재는 1천 에이커에 고무나무 식재중
- 에이커 당 550kg 정도 생산됨(신제품종인 경우)
- 비료는 태국제품을 사용(Thaiourea)
- 만델레이 등지에서 노동력 활용
- 향후 3개월 이내에 양곤에서 이곳까지의 도로가 포장완료될 예정

7.4. KOTRA 관장

- 미국은 오바마 정부 들어서서 미얀마 사태에 적극 개입하는 것으로 전환함. 그동안 인권을 강조하여 왔으나 현재 미국에 큰 위협을 줄 나라는 아닌 것으로 인식하였음.
- 중국은 현재 해안개발에서 내륙(사천, 운남 등) 개발로 이동 중인데 미얀마가 내륙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음.
 - 가령 수력발전, 천연가스, 에너지 등
 - 미얀마를 통하여 곧명, 충칭으로 연결을 시도하고 이미 착공했음.
 - 이는 상해쪽 보다 물류비가 절약되므로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
- 세계 원유의 60%가 인도양을 거치고 있는 인도양 시대임. 중국은 인도양 진출을 위한 출구로 미얀마를 선택하였음. 석유 터미널(짜우쿠?)를 개발하여 전략적 기지로 활용하려고 함. 이에 대하여 미국도 방관만 할 수 없는 상태임.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내년에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방문할 예정이라고 함. 왜냐하면, 인도쪽부터는 회교, 힌두교이어서 미얀마가 마지막 남은 프론티어로 인식됨. 아울러 한국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음. 일본과는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중국과는 차별적인 전략이 필요함. 중국에 대해서는 상대적 경계감을 가지고 있음. 이는 국경 문제때문이기도 함. 태국은 이미 일본이 장악함.
- 미얀마는 내년에 총선이 있음(일정은 불명). 내년초 개각도 전망됨. 이미 지역구 배정이 완료되었음. 정권이 야당으로 교체되리라고는 보지 않음.
- 1962년 이후 47년간 군정임. 군부의 영향이 지대함. 심지어 군복을 입고 근무함. 총선 후 민정에서 법에 따른 행정이 시작되면 큰 변화가 있을 것임.
- 미얀마의 산업발전 수준은 한국의 1960년대 초라고 할 수 있으며, 기계, 비료, 농약, 종자 등 모두 부족함. 생산성은 한국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할 것이며 생산성 증대가 가장 중요함.

- 중국은 약 3만, 베트남은 2천 개 정도의 기업체가 진출하고 있음.
- 농업분야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음.
 - 거시적인 것보다는 유통, 가공 등 측면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쌀 손실률이 50%에 육박함. 수확후 단계 꼭지별로 지원 필요. 사업의 발굴 능력도 부족함.
 - 농업, 그 중 쌀은 특히 가장 중요한 산업부문과 작물임. ODA 쪽이건 실제 투자사업이건 현장 경험과 사례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
- 우리 교민이 하는 구델(Goodel)사가 카친 주에 3만 에이커를 확보하였음.
 - 이 나라 농업관계부와는 아직 MOU는 체결하지 않았음. 농업관계부는 종자개발 등도 해 달라는 요구임. 그러나 그럴 역량은 아직 없음.
 - 서울대 농대, 전남대 농대(학장 김갑용 교수)가 만달레이 농대 등과 협력관계에 있음. 그러나 아직 지속적이지 않음.
 - 카친 주에도 rksk는 있으며, 선불리 어떻다고 할 수는 없음. 어차피 민주화되면 미얀마 자체가 혼란스러울 수 있음.
- 에너지 등 외국인 투자시 정부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함. 농업도 마찬가지임.
 - 토지는 국유이며 형식적으로는 연방정부와 계약하여야 하고, 지방정부는 관리주체가 됨.
- 현재 KOICA는 Bago, 만델리이 지역에 관개실험연구센터를 지원함. 건물 개보수(실험실), 컴퓨터 자재, 실험기자재, 연수교육, GIS 교육 등을 지원함. 이 밖에 농촌개발 사업이 있음.
- JICA는 Bago의 센터에 장비를 지원함. 또한 국경지대를 개발하고 대체작물 개발을 지원함.
- 미얀마 정부의 2006~2011 3대 중점 개발정책은 농촌종합개발(Integrated Rural Development), 국경지역 개발, 특별지대(Special Zones) 개발임.

8. 주요 수집, 참고문헌

- 김동호, 2009, “미얀마 농업개발,” KOTRA 양곤KBC, 미얀마 농업투자조사단 설명회 발표자료.
- 수출입은행, 2009, “미얀마,” 「2009 세계국가편람」.
- 코트라 양곤 무역관, 2009, “농업 및 바이오 에너지 현황,” 한-아세안센터, 「2009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투자조사단 참고자료: 농업 및 Bio-Energy」.
- 한국수출입은행, 2009, “미얀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12월 24일.
- 한-아세안센터, 2009, 「2009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투자조사단 참고자료: 농업 및 Bio-Energy」.Department of Agricultural Planning, 2008, 「Myanmar Agriculture at a Glance」.
- Thuza, Mya, 2009, “Myanmar Investment Regime,” KOTRA 양곤 KBC, 미얀마 농업투자조사단 설명회 발표자료.